

의 드 큰  
음 문 큰  
보 기 지 큰

회 회  
교 연  
리 지  
감 저  
합 뉴  
연 대

# 복음의 질문들

---

## 본 교재에 대해

이 교재는 개교회의 리더, 주일학교, 소그룹, 그리고 연회의 사역팀들이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각 섹션은 일련의 질문들과 말씀의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질문에 다가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덧붙여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힐 비디오 링크들도 있습니다. 본 교재의 의도는 추가적 질문들을 함으로써 더 깊은 묵상과 대화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연회 전체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더 넓은 관점이 가능하도록 질문과 묵상들을 올리고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온라인 블로그가 제공될 것입니다.

교회임원회나 여타 리더들이 개교회 내에서 정기 모임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또는 리더십 팀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 공부로서 이 교재를 함께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더 나아가 리더십 팀의 각 구성원은 이 교재를 교회 내의 소그룹에서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21 세기의 교회는 무엇인가를 둘러싼 여러 질문들과 씨름하도록 참여 범위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교재가 연회의 전략적 사역 계획에서 요구되는 선교와 사역 연구에 참여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더 활동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목표와 다음 단계를 찾도록 회중을 준비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복음의 질문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중들로 하여금 세상의 변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함께 만들 사역의 토대를 찾게 하는 수단입니다.

## 도입

서구문화에서는 교사는 다른 이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교사는 학생들이 더 깊은 이해를 찾도록 효과적인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일컫는 예수의 경우도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한 질문도 했습니다. John Dear, S.J.에 따르면 사복음서에 307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sup>i</sup>

질문은 듣는 자로 하여금 발견과 탐험으로 인도하며 새롭고 더 깊은 질문들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복음은 예수의 질문을 듣는 자가 현 세대에 새롭게 던져지는 질문처럼 들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 43 – 47 에서 예수께서는 산 위의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sup>2</sup>

이것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수사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더 깊게 심지어 마음이 불편한 정도의 단계까지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이 질문들은 또한 신자들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 문화의 기초를 흔들립니다. 또한 예수가 선포한 더 높은 삶의 비전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매일의 삶이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한번에 결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대뉴저지연회는 2013 회의에서 향후 5 년을 위한 사역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사역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계획에는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연회에 도전하는 심각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리막길로 가는 추세를 막고 대뉴저지 지역의 연합감리교회를 되살리기 위한 단기 처방과 해법들로 바로 가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과연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역의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 이전에 “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중요한 질문 중에는 옆으로 제쳐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리더란 무엇이나 등등입니다. 우리 교단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변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라는 사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따라서 변혁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이 변혁되어야 하는가,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왜 우리 지역 사회와 세상에서 성령의 변혁 작업을 위한 촉매가 되어야 할 책임을 맡아야 하는지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예배 공동체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교회가 왜 광역의 공동체에 대해서 고려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비추어 연회 내의 각 교회와 사역 팀이 해야 할 일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에는 하나의 단순한 대답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 교재에 나온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사역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찾고자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아마 혼란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권면하셨던 바로 그 탐험입니다. 그는 다음의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처럼 듣는 자를 궁금하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비유와 질문으로 자신을 향한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 20:1-16)<sup>3</sup>*

예수로부터 최초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공정함에 대한 이해를 놓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삶은 공정해야 하는데,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진 신앙을 가진 자들이 도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듣는 자의 이해를 돕도록 예제로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선입견에 도전하고 기초를 흔들도록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질문들은 우리가 이미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확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신실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답변뿐 아니라 질문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회의 비전과 생명력을 향해 도약하도록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초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처럼 되기를, 예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절실히 알아야 할 우리 밖의 사람들과 새로운 세대를 향해  
외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의 건설에 동역자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 제자란 무엇인가?

1



## 1.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6: 46)"**

12 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는 그들과 함께 치료와 말씀을 구하는 많은 무리들을 들판에서 만납니다. 예수의 말씀은 마태복음 5-7 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팔복과 달리 누가복음은 복과 화를 모두 기록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가르침과 반석과 모래에 지어진 집에 대한 비유 사이에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한 다음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크리스천의 제자도는 스포츠 관람도 아니고 시간에 맞으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아닙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선택입니다. "제자도는 예수의 발자취를 능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며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가족, 직장, 공동체, 그리고 세계에서 구현하는 것이다."<sup>4</sup>

예수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이들은 WWJD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나 FROG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인용함으로써 간단히 대답하려 할 것입니다. 이들은 흥미로운 약어이긴 하지만 제자도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데 이 이상의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대답이긴 하나 발자취가 무엇인지 어디로 데려가는지 등 새로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는 질문을 자신을 시험하는 자로부터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계명으로 알려진 다음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마태 22: 37-38)”*

이 말씀은 관계 -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 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는 정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으며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제자도의 근간에는 우리와 생명을 주시는 자와 소망의 근원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 1 서 3:18 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요한복음의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 12:1-3)<sup>5</sup>*



이 복음서 이야기는 유월절 6 일 전, 즉  
 예수의 임박한 체포,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복음서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 얼마 전에 11 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마리아의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광야 근처의 에브라임  
 지경으로 물러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다니로 돌아와서 친구들 집에서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행위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도록 돕는 영적 훈련과  
 연습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다니의 마리아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며, 어떻게 그 관계가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그와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안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나온  
 누가복음 10:25-37 은 종종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요소들도 들어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사용하여  
 제시된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 기록하십시오.

## 대답과 묵상

---



---



---



---



---



---



---



---



---



---

성경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가?
마태 5: 21-23		
마태 7: 12		
마가 10: 17-22		
누가 10: 25- 37		
누가 13: 10 - 17		
요한 13: 1 - 8		

제자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지 표면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제자도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읽은 말씀들에 기초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해 거의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제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하겠습니까?

---



---



---



---



---

##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예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 17)*

마태복음 22: 37-38 은 대계명, 마태복음 28: 16 – 20 은 대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명은 “모든 민족”을 새로운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최초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갈릴리에서 11 명의 제자에게 명하신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그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제자를 만드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 1:16-20)<sup>6</sup>*

예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예수와 그들 또 그들 사이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둘째로 예수는 그들의 삶의 상황과 관련된 그들을 위한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네 명은 고기잡이에 숙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삶의 경험에 잘 들어맞는 표현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희망적이고 소망으로 가득찬 미래를 제시하고 함께 이 여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자도는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자도는 그들을 부른 분의 본질을 구체화합니다.

*이런 별볼일 없는 제자들이 노력해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불합리한 일이라.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빛이며, 소명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sup>7</sup>*

예수께서 처음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두 명의 제자가 그물을 버리고 따랐으니 충분히 좋은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는 더 나아갑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따랐지만 세베대와 일꾼들은 뒤에 남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응답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예수가 다른 이들도 부르셨는데, 어떤 이는 응답했고 어떤 이는 거부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예수는 초대하고 부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제자로 삼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초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더 나아가 그와 함께 다녔고 그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의 고치심을 목격했고, 그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그들 자신 또한 사명의 일부를 완수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는 응답하고 다른 이는 거부하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예수가 선포하는 복음이 기성 체제에 불일치를 야기하는 현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많은 착오를 일으켰으나 이를 통해 거듭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며 신실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놀랍고 신기한 사건들을 목격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책임을 받는 경험을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제자도는 일회성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한 일생에 걸친 여행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의지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 결과는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성숙한 관계, 성숙한 제자도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3 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본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선언한 이후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동일한 질문을 3 번 묻습니다. 아마 예수는 베드로의 3 번의 부정을 염두에 두고 3 번의 확답을 요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와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기를 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을 사용하여 최초의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따르라는 말 대신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제자도의 새롭고 더 성숙한 역할을 맡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단지 배우는 자가 아니라 목자의 일을 하도록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러듯이 다른 이를 먹임으로써 새로운 목자는 강해지게 됩니다. 예수는 이어서

그에게 이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 말을 들으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 직전에 예수가 한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 16:24-26)<sup>8</sup>*

복음은 제자도에서 성숙의 패턴을 가리키고 있는데, 따르고 배우고 흡수하고 닮으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패턴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이 소명이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끄는 순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자는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보내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제자도의 성숙 패턴으로 들어오는 바, 삶의 대부분의 일과 마찬가지로 이 패턴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항상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심지어 왜 응답하는가 이해 없이 다른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도록 세상에서 봉사하라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성숙하는 순환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 많이 갖고 있다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로 인해 나누고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는 갈급한 상황에서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가 와서 새 생명을 찾습니다.<sup>9</sup>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처음의 응답 그리고 교회에 의해 양육되고 북돋아지는 성장하는 관계를 모두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꾸준히 계속 나아가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자신이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지고 삶이 버거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실한 사람조차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거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도는 사건이 아니라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예수와의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동안 교회는 사람들을 회중의 구성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에 예수를 따르는 헌신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일차적 역할이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과연 이 추측이 정확한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와 관련 있는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 19:16-22)<sup>10</sup>*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도전은 그가 그의 종교적 전통의 요구 사항을 완수할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를 따르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성숙한 제자의 길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예수는 교회로 하여금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성원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차이는 왜 중요합니까?

### 응답과 묵상

---



---



---



---



---



---



---



---

교회의 사역은 새로운 제자를 부르고 제자도의 길에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복돋을 때 그리고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세울 때 가장 효과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일의 본질을 구체화합니다.

*비디오 링크:*

## 대화

- 성경 공부와 비디오 관람을 통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십시오.
- 여러분의 교회는 제자도의 길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인도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 일이 오늘 날 모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중요합니까?

#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2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 예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 중 하나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해 들었던 다른 몇 가지는 놓쳤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그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7 번의 "I AM"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떡, 참 포도나무,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등입니다.<sup>11</sup>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은 그를 참람한 자, 죄인들과 함께 먹는(그럼으로써 그들을 받아 들이는) 자, 바알세불의 영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21 에서는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말한 까닭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저지하려고 온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경애와 경멸의 이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 8:29) 이것은 모든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본질적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체 교회로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몸의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고린도인을 향한 편지에서 교회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고린도전서 12:12-14)<sup>12</sup>*

바울은 또한 다음의 말을 에베소의 교회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1-6)<sup>13</sup>

“세 개의 간단한 질문들: 사랑, 소망, 목적의 하나님 알기(*Three Simple Questions: Knowing the God of Love, Hope and Purpose*)”란 책에서 Reuben Job 감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핵심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청난 질문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최상의 소망은 예수 바라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는가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Job 감독은 “우리 각각은 우리의 행위로서 즉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했는가에 의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한다”<sup>14</sup>고 말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한 가장 명료한 그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삶에서 우리의 유한성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입견에 묶이지 않으시는 불가해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sup>15</sup>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선생이었고 치료자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광야에서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회에 관여했으나 개인적 기도와 묵상을 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는 5 천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재우는 놀라운 기적도 행했으나 또한 아이들을 부르고 친구들과 저녁을 즐기는 소소한 일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 대한 21 세기 신자로서의 우리의 대답은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뿐 아니라 현 시대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경을 넘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자신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본인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택된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예수는 계속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서의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설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 8:31)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당시 대중화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의 말을 듣거나 그의 기적의 손으로 고침을 받기 위해 모인 군중들은 순회 랍비와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이미지를 굳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델에서 보여지는, 다른 이를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따르는 자라고 스스로 간주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를 산기슭에 서 있는 선생으로서 또는 나인성의 과부(누가복음 7:11-15)를 불쌍히 여기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었던 긍휼한 치료자로서만 이해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사역을 한 쪽으로 결정지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를 몰아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면 그것 또한 교회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이해를 만들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 역시 다른 종류의 교회를 형성할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는 목적은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대단히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속한 소수의 제자들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돌보는 예수의 이미지라면 담대하고 진취적인 교회를 상상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예수가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의 이미지라면 교회와 사명의 이미지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읽고 각각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성경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구체화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 6:14-19			
마태 15:21-28			
마태 16:24-26			
마가 6:35-42			
마가 11:15-19			
누가 15:3-7			
마가 15:33-37			
요한 13:33-35			

위의 말씀들은 예수 사역의 다양성, 따라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인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대해 다른 이들과 토론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나누십시오.

아래에 두 문장으로 여러분의 토론을 요약하십시오.

---



---



---



---

### 살아있는 몸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 15:1-5)<sup>16</sup>*

예수는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매우 유기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뿐만 아니라 열매에도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하나의 몸처럼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의지하고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에게 의지합니다. 집합적인 가지들이 교회이고 각각이 열매를 맺을 책임을 갖고 있으며 열매로부터 씨가 생성되고 그리스도는 새롭게 됩니다.

예수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교회의 일차적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개체 지역 교회의 역할과 목적을 상세하게 풀어 놓은

곳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상황, 교회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주위 상황의 변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는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시대, 장소에서 교회는 자신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의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어떤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와 사역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그룹에서 서로 이것을 나누고 찾는 것들을 아래에 기록하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부활하신 날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박은 이들을 두려워 하여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자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 20:21-23)<sup>17</sup>*

성령이란 선물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순간 감동됩니다. 제자들은 바뀝니다. 더 이상 스승의 발 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되도록, 예수의 손과 발이 되도록 보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성령에 의해 생기를 얻고 능력을 받아 갈 것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통해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19-22)<sup>18</sup>*

성령의 선물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복음의 방법들을 예수에게 배우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나누고 아픈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밟힌 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음을, 그래서 새로운 제자들이 다른 이를 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했음을 압니다. 성령은 스스로를 돌보고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닫힌 문을 나와 예루살렘과 그 이상까지 사역하게 된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뒤로 하고 세상을 바꾼 담대함으로 나선 것은 성령 받은 이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나가도록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가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우선시하는,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을 하는, 제정적이든 또는 다른 방식이든 자신을 위한 이득에 근거하여 사역을 평가하는, 구성원들을 편안하게 하지만 교회 바깥과는 관련 없는 전통이나 습관에 안주하는 교회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조직인지 유기체인지, 어떤 기능을 위해 사람들이 정적으로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따라 자라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몸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봐야 하고 맥박을 재고 건강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 삶의 방식과 습관을 조정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살펴야 합니다.

*비디오 링크:*

대화

- 생명력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교회가 판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여러분의 교회에서 발견한 생명력의 증거는 무엇이고, 이것들은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어떤 차이를 만듭니까?



# 영적 리더는 무엇입니까?



3

### 3. 영적 리더십

Dave Ramsey의 팟캐스트 *EntreLeadership* 토론의 주제 중 하나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한 위임과 팀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사업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식견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의 목적은 당신을 복제하는 것이다. 당신의 리더십이 성숙할 때, 위임해야 한다고 깨달을 때가 온다”를 강조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팀을 세우는 것, 그리고 업무와 결과의 위임으로 시작됩니다. 종종 업무의 위임은 있으나 최종 결과물은 위임을 지시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리더만 조명을 받고 팀의 다른 이들은 단지 조력자로서 간주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결과물을 모두 위임하면 결과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고 책임이 나누어지며 미래의 성장을 위해 리더십이 배가됩니다.

“팀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리더로서의 당신의 일이다. 그 반대가 아니다.” (사업에서) 팀을 세우는 것은 회사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리더)에 대한 것을 멈추고 팀에 대한 것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리더는 따라서 한결같아야 하며, 계속해서 팀을 위한 비전을 보여야 하며, 팀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음을 꾸준히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sup>19</sup> George Barn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리더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성공할 경우에만 성공한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리더가 하나님께 예민하게 응답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복돋을 때만 성공한다.”<sup>20</sup>

예수는 결코 Dave Ramsey나 George Barna가 쓴 것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이런 원칙들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는 결코 경영이나 비즈니스 과정을 수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세속이든 종교든 모든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임을 압니다. 예수는 여러 측면에서 궁극의 사업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흥미로운 비전을 희망찬 미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 비전은 율법과 선지자에 기초하였으나 당시의 종교적 모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사랑, 용서, 그리고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잊혀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을 포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희생 의식에 좌우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는 그 뒤를 이을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따르는 자들을 한 팀으로 불러모았으며 그들은 유대와 갈릴리 너머로 그의 일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팀으로 세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는 나라의 비전을 선도하는 사역을 하도록 가르치고 상담하고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었지만 이것은 결코 그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인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그의 행보와 기적이 지체된 것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1: 15, 40). 예수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태 19:17)" 그는 자신의 선함을 우상화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열두의 제자를 보냈고 나중에는 70 인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동일하게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5 천명 이상의 사람을 먹여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재우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능력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그의 때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역을 계속 할 팀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를 뒤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문자 그대로 세상을 바꾸는 사역, 세대에 걸쳐 더 늘어나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각 제자들이 받은 은사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 성령의 은사

*예수의 질문: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성령의 최초 임재는 두 곳에서 기술됩니다. 하나는 지난 공부에서 읽은 요한복음 20 장에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 장에도 나옵니다. 오로지 예수가 떠나는 시점에서 성령이 왔다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내재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들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의 상황에서는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따르는 자들 속에 예수의 생명과 가르침과 모범이 살아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열고 능력을 받는 것은 예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주어진 은사를 통해 또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신약에 기술된 최초의 은사 중 하나는 사도행전 4:31 에 기록된 바 담대한 말의 은사입니다. "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울의 서신에는 성령의 은사를 열거한 곳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에 또 하나는 에베소서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4-8)<sup>21</sup>*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11-16)<sup>22</sup>*

이 글에는 특정 은사들을 열거한 것 이외에 영적 은사의 목적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 은사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의 성숙한 관계로 이끌고 몸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주셨습니다. 영적 은사는 따라서 자기 강화나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은사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장과 성숙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적 은사는 공동체의 믿음의 헌신을 깊게 할 뿐 아니라 초청, 환대, 환영을 더 잘하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주심을 신뢰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이적 후에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다른 9 명의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때때로 불에 몸을 던지는 간질병 걸린 아들을 위해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 도움을 청합니다. 이 남자는 그 아들을 9 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 17:17-20)<sup>23</sup>*

예수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에 대해 분노, 낙담, 애탐, 심지어 슬픔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예수는 바랐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의 치료가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결과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치료할 수 없었던 걸까요? 제자들이 이전에 보냄을 받았을 때 수고의 결실을 본 적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병 고침이나 귀신 쫓음의 은사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들은 이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까요?

---



---



---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되려면 우리의 은사를 알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은사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리고 땅과 하늘의 어떤 힘도 우리를 그 소속의 안위와 신분과 안전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sup>24</sup>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받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 주십니다. 영적 은사를 인식할 수 없음이 은사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 내의 다른 이의 은사를 발견하고 불러내어 몸을 세워가는 데에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돕고 장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이든 다른 이든 어떤 이가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은사는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기술과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직업, 훈련, 교육 배경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선입견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임원, 주일학교 교사, 제정위원회 위원 등 교회 내의 어떤 직분이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반 직장 생활에서도 잘 활용되는 행정, 교육의 은사를 가지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새로운 제자를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미개발된 사용되지 않은 다른 은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를 보는 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일입니다. 더 깊게 보고 개인과 교회의 삶의 여러 다른 시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찾는 것을 돕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은사 확인의 효과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대화와 격려와 배움에 참여할 때 더 강화됩니다. 예수는 어부들과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설교자, 치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예수 주위에 모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모두 70 명이었는데, 예수는 이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하던 바로 그 일을 제자들이 충만하게 은사를 받았음을 믿으면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 10:2-9)<sup>25</sup>*

예수는 70 명 안에서 그들 자신은 거의 인식하지 못한 은사를 보았습니다 (누가 10: 17-20). 어떤 사람의 은사가 은사를 받은 자신보다 그 은사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나 신앙 공동체에게 종종 더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



---



---



---

### **영적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 - 무엇이릅니까?**

영적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특성 사이에 잘못된 이분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리더의 수고가 가져오는 결과가 둘 사이에 다르게 측정되지만 많은 부분 두 리더십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리더십 스타일이나 리더십 기술에는 아마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점이 누구를 인도하는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큰 차이점은 바로 누구를(무엇을)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을 결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결정하고, 누가 효과적이고 변혁하는 리더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Book of Discipline*의 많은 곳이 신실한 리더십의 특성을 묘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리더십으로 소명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다듬어지고, 교회의 포용성에 헌신하고, 사회 원칙에 설명된 연합감리교회의 윤리표준을 따르고, 치리할 역량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천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sup>26</sup> 리더들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의와 자비에 헌신하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소명 받았습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도록, 자신들이 누구를 따르는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역량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인허/안수 사역으로 가는 과정의 처음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John Wesley의 첫 번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들은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아는가?
-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안에 내주하는가?
-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가?
- 이들은 모든 대화에서 거룩한가?<sup>27</sup>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적 리더십은 의미 있는 성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며 모든 것은 이 관계로부터 흐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경제적, 정치적, 개인적 이득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신을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적 리더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리더는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들도 효과적인 리더십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인식할지 모르지만 목표를 같은 식으로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 리더들이 자기 중심적이라든가 이익 지향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영적 리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누구를 어떻게 따르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서 누가 여러분의 중요한 영적 리더였는지 몇 분간 함께 논의하십시오. 그 분이 가진 자질과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분은 복음을 어떻게 구체화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토론하면서 확인한 자질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예수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비범한 선생이며 치료자였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 주었습니다(요한 13).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섬김으로써 이끌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인적 관심사나 다른 것으로부터의 압력이 자신의 사명을 흔들도록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비록 십자가로 이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 진정한 능력으로 섬기도록 보내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공급할 것을 신뢰하면서 그가 능력을 부여한 이들에게 미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긍휼히 여겼고 자비하였으며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받았으나 또한 그들을 그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불렀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둔 그의 가장 큰 시험 순간에서도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였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로 인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비디오 링크*

대화:

- 우리 교회에서는 효과적인 영적 리더들을 어떻게 찾고 격려하고 목회 현장으로 보내고 지원합니까?
-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다양한 사역 현장으로 부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



## 4. 변화

**예수의 질문:**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 18:7)*

*세상의 소망, 큰 긍휼의 그리스도...*

1954 년에 Georgia Harkness 는 일리노이주 Evanston 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두 번째 총회를 위해 찬송 "세상의 소망"을 작사했습니다. 그녀의 찬송은 부서진 세상에 완전한 치료를 가져오는 수단으로서 화해, 정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거의 60 년 전의 그녀의 소망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소망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문을 집어 보거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거나 24 시간 케이블 뉴스채널을 켜면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전쟁의 위험은 아직 우리 지구촌에 창궐합니다. 폭력도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구조적 억압이 세상의 문화를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으로 취급되며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됩니다. 수백만 명이 막을 수 있는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환경 피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감의 결여가 넘쳐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세부 사항은 바뀌지만 파괴와 분열을 조장하는 문화적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그의 기도의 응답을 듣기 위해 죽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안나 또한 오랜 세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오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누가 2: 22-38).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에 모인 군중들 또한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할 메시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선택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유리된 채 유대인들이 소망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듯이 그리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고대한 소망은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녀에게 우물의 시원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 4:5-39)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 성 사람들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가  
자신의 삶에 도전하고 바꾸는 능력을 보인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눈  
여인에 대한 완전함과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의 그녀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



---



---



---

여인의 변화가 제자들과 수가 성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



---

누가 19: 1-10 는 다른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웃을 착취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불렀다고 고백한, 세리이며 로마 정권의 협력자인 삭개오에 대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는 삭개오를 보고 그날 저녁을 그의 집에서 함께 하겠다며 내려오라고 부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19:6-10)*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가 속인 자들과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화해하겠다고 밝힙니다. 예수는 완전함과 평화의 구원이 그의 집에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줄고 새로운 세대가 다른 영적 대안을 찾으면서 복음 바깥의 무언가가 해답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수 세대 전의 과거의 상황을 다루었지만 오늘날의 문화와는 관련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보다 최신 프로그램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신앙관에 맞는 복음의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고, 예수의 삶, 사역, 죽음, 부활의 완전한 전체를

보기보다 개인적 경건이나 사회적 성결 중 하나를 포용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문고판 책들이 아닌 우리의 영혼으로 예수를 신뢰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 모두는 복음과 우리 삶에 존재하는 그 변화의 능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세상을 바꾸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를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통해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의 비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가고 다가갈 것이라는 굳은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2012 Book of Discipline 에 나온 아래 문장은 변화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본을 보이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다. . .*

*. . . 이 사명이 곧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은혜가 충만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 어디에서나 활동하며, 성경에 나타난 바 이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 .*

*. . . 연합감리교회가 사명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관계를 치유하여 주셨고, 사회 구조를 개혁하셨으며, 성서적인 성결을 전하심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셨다.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sup>28</sup>*

여기에서 말하는 사명은 우리 교단에서 채택하였지만 단지 연합감리교회뿐 아니라 보편적 교회의 목적으로 믿는 것임에 주목하십시오. 그룹으로 나누어 각 발췌문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진행중인 사명이나 사역에 대해 충성된 제자의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



---



---



---



---

John Wesley 는 세계가 그의 교구라고 말했습니다만 교구가 우리의 세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더 위대한 소명에 비춰볼 때 여러분의 교회는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



---



---



---

사람들을 구하고 관계를 고치고 성경적 경건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보지 못함으로 인해 어디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



---



---



---

*왜 변화인가?*

**예수의 질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빵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 7:9-10)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나 케이블 뉴스 채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진 비전과 상충된다고 보이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의 분열, 폭력,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불균형, 사람들의 대상화, 성차별, 인종차별, 혹은 잘못된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제목들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들과 평론가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마귀처럼 묘사할 것입니다. 학교의 예산은 깎이는데 의회는 국방성마저도 의문시하는 무기 체계를 승인합니다. 예수의 탄생지와 그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나누고 수 세기간 존재한 종교적 정치적 투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날의 어떤 이슈를 지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물 사이에 분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와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영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빵을 찾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로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며 분명 사랑과 긍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제공하고, 침묵하는 자들이 말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향한 새 비전을 공급해야 합니다. 때로 이것은 다른 교회들, 정부 기관들, 국제 조직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우리와 함께 걸으려 하지 않아서 혼자 걷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에겐 환영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핍박을 초래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것에 대해 경고했으며 우리를 둘러싼 문화보다 더 담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걸었던, 우리에게 새 길을 가르치셨던, 그와 이미 함께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받도록"<sup>29</sup> 그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진정한 뜻을 보이셨던 분의 살아있는 임재입니다. 각 새로운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고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책임은 너무나 자주 교회의 건물 안에서만, 문턱을 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면서도 의를 위해 일하고 두려움과 위협과 구조적 불의와 심지어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침묵하는 자들을 위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우리가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포용하는 사람들은 환영하면서도 선물을 받기 꺼려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는 물러섭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향력이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엄청난 압도당하여 침묵합니다.

우리는 곧잘 작게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이다.  
우리는 작은 교회다.  
할 일이 이미 많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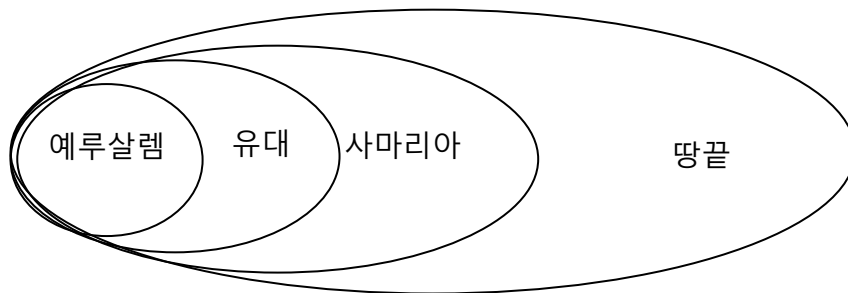
변화의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른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승천하기 전 예수는 11 명을 모읍니다. 대단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한 후 그 그룹에서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숨거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가 시련을 겪을 때 충성하겠다고던 그들의 담대한 선언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다시 감람산 위에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도행전 1:8-11)<sup>30</sup>*

예수는 세상에서 살아 있는 몸이 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널리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들의 안전 지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관한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는

“단지 우리 11 명뿐이야.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을 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는 이런 일을 할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 하나는 전에 이런 식으로 해 본 적이 없다고 십중팔구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그들에만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 주심에 대해 말했으며 그 능력으로 그들은 그들의 본토 교회로부터 세계로 뻗어가면서 더 넓은 사회, 손이 닿지 않은 영역, 그리고 마침내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점점 확장되는 사역의 영역이 우리에게 반드시 미지인 것만은 아니지만 변화를 위한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여러분의 개체 교회 그리고 소속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사회와 더 넓은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넘어선 지역, 그것이 지구 반대쪽이든 바로 옆이든 “땅끝”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래의 표를 사용하여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4, 5 가지를 확인하고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의 그룹에서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거기에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체 교회에서 어떤 단계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십시오.

변화 영역	왜 변화가 필요한가?	성경적 근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 사회			
대 뉴저지			

전국			
세계			
그 외: 개체 교회, 영역, 기타			

예수의 부활 이후, 누가 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첫 날 저녁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 24:36-38)*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질문은 그 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실제적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라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변혁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비디오 링크:*

대화:

-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삶을 변혁하고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크리스천과 연합하면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이슈들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냅니까?

# 5

우리는 왜  
청년들과 비신자,  
그리고 명목상 신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 5. 신세대를 향하여

연합감리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풍부한 다양성입니다. 세계적 교단으로서 연합감리교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와 북미의 많은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르며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강한 대뉴저지 연회 내에는 모든 문화를 대변하면서 갖가지 언어들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소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하해야 할 복이면서 서로에게 열려있고 환영하려면 교회는 모름지기 의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주류 문화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교회로 환영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서로 배우고,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다양한 방법과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다양성은 인종, 민족, 문화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나이의 다양성도 존재합니다. 대뉴저지 연회의 평균 나이는 37 에서 38 세 사이이지만, 전체 연합감리교인의 평균 나이는 58 세입니다. 우리의 회중 가운데 사라진 세대들이 있는데, 삶을 다르게 경험하고 세상에 대해 신선한 관점을 갖고 있는 더 젊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 세대는 대략 1984 년에서 2002 년 사이에 태어났으며 모자이크 또는 새천년 세대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십대와 청년들로서 교회에서 주로 볼 수 없는 세대입니다.

모자이크 세대는 이 나이 그룹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설명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일체가 아닙니다. 사실 모자이크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Barna Group의 사장이며 *UnChristian*의 저자인 David Kinnamon에 따르면 교회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5 명 중 3 명은 향후 10-12 년 사이에 교회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미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Kinnamon이 지적하듯이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이벤트라고 해서 반드시 삶을 바꾸는 변화의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sup>31</sup>

모자이크 세대는 개인 관계와 새로운 경험들에 열광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뿐 아니라 세상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꾸는 능력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sup>32</sup> 교회에 있어서 위기는 점점 늘어나는 모자이크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교회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 이들 젊은이들이 빛을 발견하고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 본 적도 없고 기독교 메시지를 존중하는 가족에서 양육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젊은이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들은 우선 거기에 가 본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세대에 대한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Pew Research 보고서는 새천년 세대에 대해 몇 가지 관련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 이들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더 다양하다. 덜 종교적이고, 군 복무 경험이 더 적으며, 현재 과정대로라면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교육받은 세대가 될 것이다.
- ✓ ¾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1/5 가 자신의 비디오를 온라인에 올려 놓았다. 거의 4/10 이 문신을 갖고 있다(문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약 절반이 2-5 개의 문신을, 18%는 6 개 이상의 문신을 갖고 있다). 거의 ¼가 낫볼 외의 다른 곳에 피어싱을 했다.
- ✓ 이들은 가장 종교적으로 소극적인 미국 세대이다. ¼가 어느 종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소속되지 않은 것이 꼭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세대는 그들의 선배들이 젊을 때 한 것만큼이나 자주 기도한다.<sup>33</sup>

이들 모두는 우리 교회를 둘러싼 선교의 장이 넓다는 사실, 즉 쇼핑몰과 식당, 피트니스 센터와 체육관, 회복 및 자기 계발 그룹을 채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의미 있고, 풍부하며, 인생을 바꾸고 변형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이는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 10:10)<sup>34</sup>

오늘날 교회의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더 젊은 세대가 들어오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자이크/새천년 세대는 교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교회의 의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문화에 대한 그들의 견해 및 복음이 그것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은 2-30 년 전의 몇 곡의 찬양으로 표현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교회, 커피를 예배 공간에 가져올 정도로 격식 없는 분위기를 찾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모자이크 세대와의 대화 속에서 종교의 유산을 그저 다음 세대로 옮기려는 수단으로서 그들을 환영하려는 교회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삶 속에서 자연스런 리듬처럼 환영하고, 초청하고, 함께 씨름하며, 섬기도록 보내는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다채롭고 열린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선교의 장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대사명을 돌이켜 보면 예수는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지도자이자 모든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의 법을 따를 것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 그 너머를 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다른 곳으로 가도록 도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9-16)<sup>35</sup>*

베드로의 환상에서 그 시대의 유대인 크리스천이라면 놀라거나 도전 받을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



---



---



---



---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무두장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고, 사람이나 동물의 피와 접촉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의 법 때문에 이 집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에게는 확실히 도전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베드로와 아는 사이였고 그는 이 사도를 그의 집으로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미 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더 대담한 무엇이, 즉 더 나갈 것을 촉구하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길을 준비하고 다음을 위한 무대를 세웁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옴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사도행전 10:22-29)<sup>36</sup>*

사도행전 10 장의 이 부분이 별 특이할 것이 없는 논리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군인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정부를 위한 수도였고, 대도시였으나 유대인들은 거의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자신이 이 도시에 방문했다는 언급도 없고, 이 일 전에는 복음서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크리스천이 우리의 문화에서 세속적이거나 더럽다고 간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



---



---

모자이크 세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세대간의 다리를 놓기보다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벽을 쌓고 있습니까?

### 성경이 촉구하는 우리의 행함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1-5)<sup>37</sup>*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 선호, 지역주의, 자기 높임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방식의 생각, 다른 마음 가짐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로 칠해진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 모델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반대를 넘어서 아이들을 환대했고, 공개적으로 여인들과 말하고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사회적 관습을 타파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받아들임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었고, 사도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그와 같은 태도,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겸손의 모습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교회가 모자이크 세대로부터 배울 것은 많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자이크 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며 변화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sup>38</sup> 이들은 또한 변화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신앙이 삶과 연관되도록 다른 이를 섬기고 직접 몸으로 뛰는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모든 종류의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신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모자이크 세대는 평균 매일 8.5 시간을 텔레비전, 라디오, 음악, 인쇄물, 컴퓨터,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의 다양한 미디어 활용에 사용합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압축한다면 6.5 시간을 사용하는 셈입니다.”*<sup>39</sup> 다른 말로 한다면 이들은 단순한 파워포인트 발표나 토크 헤드 비디오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비디오를 만들고 소셜 네트워킹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과 매일 소통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몇 분간 그룹으로 모여서 여러분 교회의 몇 가지 특성을 단점이 아닌 은사로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더 살아있고 더 관계지향적이고 우리가 섬길 세상과 더 연결되도록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 응답과 묵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명령을 복음서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수의 세계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언급된 구절이 여러 곳 있지만, 성인들이 모인 장소인데 젊은이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자 청년, 나인 성에서 살아난 젊은이처럼 상황 자체는 성인이 초점인 것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 특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한 가장 강한

---



---



---



---



---



---



---



---



---



---

소명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모자이크/새천년 세대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모자이크 세대와 사역하라는 교회의 소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다른 그룹보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고, 믿으며, 행하도록 초청하십니다.”*<sup>40</sup>

그리스도는 교회가 모든 세상으로 향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대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둘이 합쳐서 전체를 이룹니다. 선지자 미가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목사이자 저술가인 Mike Slaughter 는 여기에 대요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세대는 그냥 지나쳐도 괜찮다고 말하는 곳이 성경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의 세계에서 모자이크는 개개의 작은 타일의 모음으로서 의도한 패턴대로 함께 모아져서 더 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로마의 유적 바닥과 대성당의 천장에서 모자이크를 봅니다. 멀리서 보면 모자이크의 각 조각이 각자의 독특한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음을 알기 어렵지만 가까이 가면 각 조각의 개별성이 명백히 나타납니다. 모자이크의 아름다움은 각 조각에 있지 않고 전체 이미지에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각 개별 조각에 아름다움이 있으며 조각이 없으면 틈이 생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 있는 무언가가 빠진 것입니다.

CNN 통신원 Rachel Held Evans 가 작성하고 UM News Service Daily Digest 에 게재된 최신 기사에는 새천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 그들이 정말 교회로부터 원하는 것은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이다.
- 우리는 문화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 우리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휴전을 원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 대신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알리길 원한다..
- 우리는 미리 결정된 대답을 갖지 않은 질문을 하기 원한다.
- 우리는 하나의 정치 집단이나 단일 국가와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의 동맹을 강조하는 교회를 원한다.

- 우리는 우리의 LGBT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진정 환영 받음을 느끼길 원한다.
- 우리는 성에 대한 것뿐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것,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돌보는 것, 화해를 추구하는 것, 창조물을 보듬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 받고 싶다.
- 라떼 한 컵 주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계속 붙어있기를 바라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거기에 멋진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우리 이전 그리고 이후의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맘 깊숙히 예수를 고대한다.<sup>41</sup>

그녀의 기사는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새천년 세대는 많은 부분 다른 세대가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자이크 세대에 다가가는 노력을 한다면 진정한 사명에 초점을 맞춘 더 건강하고 완전하며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 의미 있는 실제적 가치의 교회가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간단히 모자이크 세대를 알 수 있도록 다음 슬라이드 쇼를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slideshare.net/ez2bsaved/mosaics-2638113>

대화:

- 젊은이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있으며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의 소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 교회는 왜 더 젊은 세대와 비신자, 명목상의 신자들과 연결되지 못합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 우리와 젊은이들과의 유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거처럼 메시지가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여러분은 어떻게  
지역 사회의 사람들과  
연결하시렵니까?

## 6. 누가 나의 이웃인가? 지역 사회와 연결하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누가 10:25-29)<sup>42</sup>*

이 말씀으로부터 가장 잘 알려진 예수의 비유,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제목의 비유가 펼쳐집니다. 복음서 여기 저기에서 예수는 종교 권력과 율법사들로부터 도전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매번 그들은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없애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죄를 덮어씌우려고 예수를 코너에 몰고자 애씁니다. 그의 대답은 종종 듣는 자로 하여금 율법을 넘어 그 기초까지, 사람의 관습보다 더 큰 원칙으로, 하나님에 의도하신 더 큰 선함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수의 답변은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것이었으나 그의 더 큰 목적은 그의 도전자들의 질문에 에둘러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실,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고 놀라운 사랑의 진실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사와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율법에 의거한 전통적인 대답은 이웃이란 율법에 순종하고 종교 관습상 깨끗한 사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희생물을 가져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잘 알려진 이 비유는 이웃의 의미를 재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두 명이 이웃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여관 주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멈추어서 돕고, 여관 주인은 사회 통념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최초의 청취자들은 마음 속에 딜레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길 옆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또한 이웃의 의미는 다시 정의됩니다.



어떤 이가 교회에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을 제자장이나 레위인과 동일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 우리와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볼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복음에서 말하는 이웃의 정의 중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삶에서 빈곤, 억압, 성차별, 인종차별, 폭력, 육체적 언어적 감정적 학대로 인해 두들겨 맞은 사람을 이웃으로 정의할까요? 교회는 나이, 능력, 고용 상태, 인종/민족/문화적 배경, 불법 체류, 성향, 또는 삶의 여러 선택 때문에 길 옆에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을 이웃이라고 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지역의 상황 내에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정하는 데 본질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정의가 여러분 안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빈 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



---



---



---



---



---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꺼이 환영하는 것이 포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포용하는 공동체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훨씬 넘어갑니다.

‘포용성은 열림, 받아들임, 그리고 지지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의 삶에 참여하도록 한다. 포용력이 있는 사회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고, 환영하고, 완전히 받아 들이며, 다른 모든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이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의 삶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sup>43</sup>

포용력이 있는 교회는 기꺼이 자신을 검증하며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단계에 완전히 참여하게끔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지역 사회가 끊임 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포용적인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에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나눌 것인가 모색하면서 비신자, 명목상 신자와 대화하려고 합니다. 포용적인 교회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진실된 공동체를 창조하도록 대화하고 배우는 열린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개개인의 완전한 잠재력을 계발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혁신하고 지원하고 평가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복음의 이해이다.<sup>44</sup>*

위의 두 인용문은 연합감리교회의 *Book of Discipline*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실한 연합감리교인이라면 포용적이며 열려있는 공동체, 격려하고 창조적이고 삶을 주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행진명령을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을 따라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질문: 여러분의 개체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 사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지역 사회의 인구 구성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ssionInsite 에서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연회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교회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정보들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 깊게 연구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본 토론의 목적을 위해서는 간단히 살펴봐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의 통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교회	차이 ±
<b>평균 나이</b>			
· % 18 이하			
· % 18 - 34			

· % 34-54			
· % 55 이상			
<b>인종/민족 구성(%)</b>			
· Asian			
· Black/African American			
· White			
· Hispanic/Latino			
· Nat. Am/Pac Islander/other			
<b>%육체 노동자/정신 노동자</b>			

위의 정보와 여러분이 교회와 지역 사회에 대해 아는 다른 정보를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 사회가 같습니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점

다른 점

---



---



---



---



---



---



---



---



---



---



---



---



---



---

*누가 환영할 것입니까? 누가 일할 것입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니 데리시고 따로 뱃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 9:10-17)<sup>45</sup>

5 천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4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명백히 이 사건은 교회가 작은 지역적 신앙 공동체로부터 유대교와 뚜렷이 구별되는 제국 전체의 신앙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보존되어서 다양한 현장에서 다시 들려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적이 12 명이 예수가 파송한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권능의 결과에 놀라와 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모이고 그들을 먹여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군중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대조적인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능력을 받았으나 군중들을 먹일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고 떼셨지만 무리를 먹이라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받은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12 명은 은사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까닭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모범 크리스천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하여 몇몇의 선택 받은 소수에게 사역을 맡기고 나머지는 이들 진짜 목회자들 - 목사이든 동기부여가 잘된 재능 있는 평신도이든 - 을 지원하거나 조언하는 모습의 교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부분에서 목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으며,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새 생명을 주며, 가장 작고 낮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모두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소명을 받았다고 전통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들의 섬기는 리더십은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들은 세상 속의 크리스천의 삶을 위한 영성 훈련과 지도를 통해 개체교회의 성약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하도록 돕는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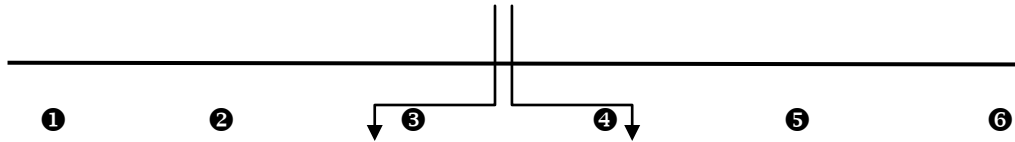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로 오고 가고, 세상의 필요가 계속 새롭고 다른 것으로 탈바꿈하는 까닭에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실제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교회가 지역 사회의 모습과 같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사할 것이, 물어볼 질문들이, 계속 충성스러운 교회로 남아 있기 위해 결정할 것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를 닮았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고착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의 삶에서 함께 더 깊고 풍부하게 성장할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등과 같이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와 사람들이 바뀌면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그 변화하는 세계와 함께 바뀌어야 하므로 교회는 오늘의 위치에 결코 자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도록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여기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역 사회에 섬기지 못하거나 덜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인식하지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회나 교회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단계로서 포용력 있고 환영하는 교회로 나가는 과정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함께 논의한 후 아래의 단계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울러 제공된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 우리는 자족하는 교회로서 누구에게 다가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현재의 우리가 좋으며 우리 식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한다.

2.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초청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새로운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 특별한 목회 계획을 만들지 않는다.
3.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길 원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처럼 보이는 포용력 있고 환영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른다.
4.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와 닮은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더 가야 한다.
5.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와 많이 비슷해지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사역을 함께 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6. 우리는 완전히 포용하는 교회로서 우리 지역의 다양성을 여러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다.

위의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후 거기에 맞는 아래 3 가지 질문들을 논의하십시오.



### 1, 2, 3 단계의 교회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야 할 다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접한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최초의 연결고리들을 만들 것입니까?

### 4, 5, 6 단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과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리를 구축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계속되거나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알고 있어야 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필요성과 경향성들은 무엇입니까?

나이, 민족, 문화, 경제 등의 면에서 교회가 우리 지역의 열린 태도와 환영의 모습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 반영하도록 만드는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되었으며  
진취적 계획을 누가 책임을 맡아 작성할 평가되었습니까?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까? 효과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비디오 링크

대화:

- 여러분의 인접 지역 사회와 다리를 놓고 사역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합니까?
- 교회가 의지가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왜 참여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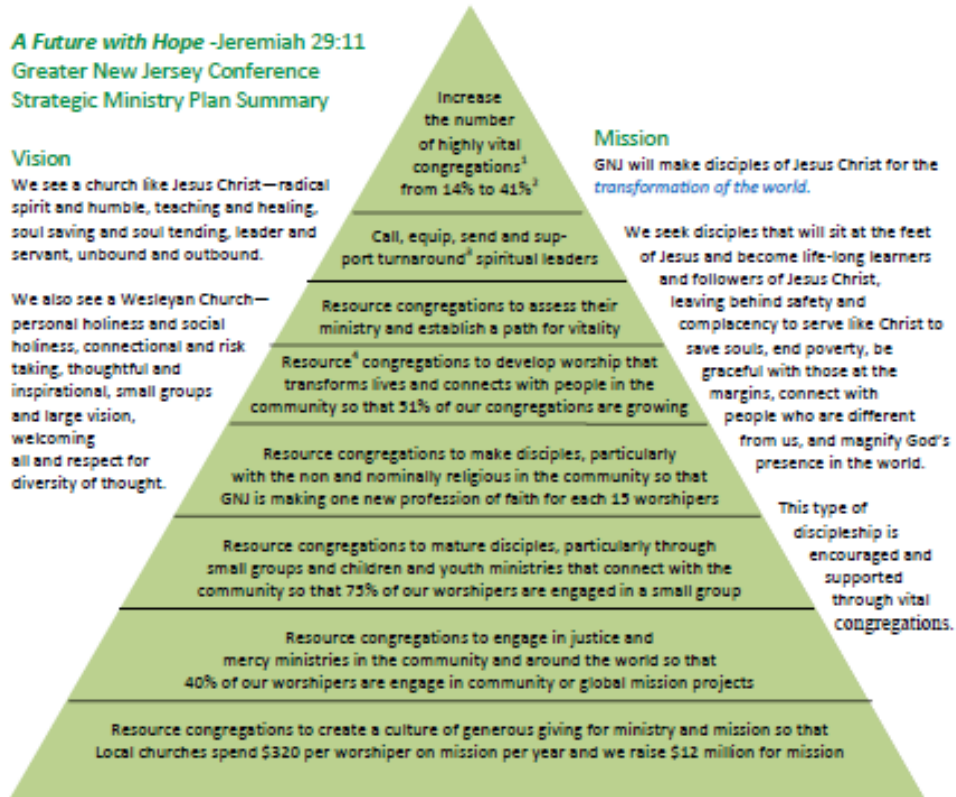


7



## 7. 행동 계획 – 배우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sup>1</sup>HIGHLY VITAL CONGREGATIONS are inwardly transformed and missionally outbound. Vital congregations are Spirit-filled, forward leaning communities of believers that grow over time, welcome all people (Galatians 3:28);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Matthew 28:18-20); and serve like Christ through justice and mercy ministries (Micah 6:8 and Luke 4:17-21).

<sup>2</sup>FROM 14% TO 41% is a complete turnaround and transformation of the way we do ministry. It will require a full commitment to follow the way of Jesus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lign conference ministry with congregations. Building on our Wesleyan tradition, we will focus on processes, equipping,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

<sup>3</sup>TURNAROUND LEADERS assess the gifts and needs of the congregation and community, set a courageous vision and goals, and inspire and equip the congregation to make new disciples, grow worship, grow disciples' faith through small groups, engage the congregation in life changing mission, and increase giving to mission and ministry. Ephesians 4:11-12

<sup>4</sup>WE WILL RESOURCE congregations and spiritual leaders that are ready and desire to become vital and more like Christ. We will resource for three stages of ministry – explore, engage and evolve. We will resource congregations and spiritual leaders by coming along side of them and assisting them with their development plans. Congregations that desire to continue as they are we will work with as legacy congregations.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 7:7-8)<sup>xlvii</sup>*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행동과 미래에 대한 비전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지역 사회와 세상 끝까지 전했습니다. 다른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선택했습니다. 부활의 날에 두려워 목숨을 위해 잠긴 문 뒤에 숨었던 제자들은 곧 복음을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선포하고 수 천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 체험과 수년간의 교회의 양육 후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하며 복음을 제국의 수도 로마에 전할 계획을 가집니다. 초대 교회의 담대한 지도자에게 쉬운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팎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며 그들이 아는 사상 최고의 좋은 소식, 즉 세상을 향한 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있다는 소식을 나눌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예루살렘의 공의회 앞에 불려간 후 풀려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옆에 고침 받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공의회는 그런 놀라운 일과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말한 담대한 증언 앞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두 지도자가 풀려난 것을 보고 놀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29-31)<sup>xlviii</sup>*

성경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행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대담한 만남, 하나님 사랑의 대담성, 신실함의 대담성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15-16)<sup>xlix</sup>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행함으로 나설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Martin Luther, John Wesley 와 그의 동생 Charles, John Allen, Sojourner  
Truth 같은 리더들과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고자  
했고, 인기와 관계없이 나섰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회의 흐름에  
저항하였습니다. 유능한 크리스천 리더들은 그들 앞의 일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성경에 기초한, 담대한 한 가지 계획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한편 이 비전을 의심하고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 4:16-22)<sup>l</sup>*

예수가 사역의 사명과 비전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각자의 말로  
적으십시오.

---



---



---



---

어떻게 그 비전이 위에서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 만한 크기의 비전입니까??

---



---



---



---

2013년 6월, 연합감리교회 대뉴저지연회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 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의 감소, 경제적 도적,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노후한 건물,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역의 비용 증가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대담한 비전에 과연 지혜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매우 사실적이지만 대뉴저지 연합감리교인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없이는 이를 수 없는 헌신입니다.

이 전략적 계획은 연회와 산하 모든 교회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나 우리 스스로 성취하기에는 너무 큼니다. 기도, 성경 공부, 관계 수립, 냉정한 평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개체 교회와 연회가 전에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 교재에서 다룬 질문들이 제자도, 리더십, 변화, 포용성, 공동체 세우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생각의 확장을 요구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신자, 명목상 신자, 그리고 더 젊은 세대와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방법들을 어떻게 바꾸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통해 이미 도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까? 이 계획이 우리 연회를 전진시킨다면 이 질문은 대답해야 할 중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따를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충성되고 더 결실을 맺으려 한다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같은 교회를 봅니다. 혁신과 겸손, 가르침과 고침,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 지도자와 종, 자유와 파송... 우리는 웨슬리 교회를 봅니다.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성결, 함께 연결됨과 모험의 감수, 속고와 영감, 작은 그룹과 큰 비전, 차별 없는 환영과 다양한 생각의 존중이 그것입니다.*

이 말은 대뉴저지연회를 향해 제시된 비전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비전의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진행 중인지 생각하십시오. 왜 이 특정한 부분을 골랐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십시오. (아래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 비전의 어떤 부분들이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룹 전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



---



---



---



---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비전의 어느 부분을 실행하기가 어려웠거나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착수한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



---



---



---

사역을 위한 계획과 전략은 비전을 완수하는데 중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시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의 사역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가 시민권을 활용하여 로마에서의 재판을 요구함으로써 그 먼 곳까지 전도 여행을 갈 수 있게 한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는 종종 사역 계획을 짜는데, 일부는 교회를 성공적으로 전진시키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 수립 과정과 문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면서 어렵게 계획을 채택하지만 막상 그 다음엔 책장에 꽂아놓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의 성공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 뭔가가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계획의 효과성은 업무나 실행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계획의 목표가 계획 자체의 완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 장에 예수는 그의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다니로 즉시 가는 대신 그는 이틀을 지체한 후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예수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음을 알지만 기다렸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 11:15)"*<sup>li</sup> 도착한 후에 그는 친구의 무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 11:41-42)"*<sup>liii</sup> 예수는 두 번이나 나사로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의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의

사명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기적이거나 치료의 정해진 목록을 완수하거나 몇 개의 위대한 설교를 통해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임하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된 비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략은 가능한 한 많은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예수의 발치에 앉아 평생 배우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안전과 편안함을 떠나 그리스도처럼 섬김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빈곤을 종식시키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비전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떤 비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없다면 어떤 비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은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 있고 역동적이며 복음을 위해 열매를 맺고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한 변화의 주역이 되는 개체 교회입니다.

떠들썩하고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없는 교회는 역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부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원을 자신의 유지나 이미 출석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역동성은 행복이나 즐거움을 훨씬 초월합니다. 역동성은 차이를 만들고, 사역에서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나아가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게 자라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실 것을 믿으므로 예수를 위해 모험하는 것입니다.

이 섹션의 첫 페이지에 나온 피라미드는 그 정점에 매우 역동적인 교회를 14%에서 41% (숫자를 앞뒤로 바꿈)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상위 목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삶이 바뀌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개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연회와 리더십의 일은 교회가 역동적이 되도록 개체 교회 리더들과 이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해가면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돕는

것입니다. 제일 위의 삼각형 아래에 제시된 각각의 전략은 제일 꼭대기의 목표를 떠받치고 지속시킵니다. <sup>liii</sup>

하지만 교회의 역동성에 대한 결정은 연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개체 교회의 결정입니다. 기꺼이 모험할 것인지, 필요한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 단순한 활동보다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감행할 것인지 각 교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각 교회는 대화를 통해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도록 함께 모여야 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새로운 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대화

- 제자를 만들고, 교회의 역동성을 증가시키고, 영적 리더들을 양성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과 비슷하게 되고, 더 젊고 더 다양한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크기의 계획을 상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무엇을 탐구하겠습니까?
- 이 계획에 설명된 비전, 사명, 목적, 전략과 씨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다음 단계



## 후기

“복음의 질문들” 공부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연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각 교회마다 역시 다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력을 지향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음 단계의 액션 플랜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고려할 2~3 개의 구체적인 액션 단계를 찾아보고 이 단계들을 취하기 위한 시간표는 어떤 것인지 누가 지도적 위치를 담당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들에서는 더 강하고 새로운 리더들을 키우는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선교나 변혁 사역에 더 많은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한발 물러서서 오랜 세대에 걸쳐 교회 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었던 여러 고정관념들을 따져보길 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행해야 할 것은 교회의 어떤 그룹을 그 다음 “복음의 질문들” 공부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스터디 그룹에 속한 각자가 구체적으로 초청할 대상자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초청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현재의 성경공부나 소그룹들이 이 공부에 참여하여 21 세기의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인지 더 깊게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초청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공부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에 대해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또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함께 변화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각오하고 더 활력 있게 성장해 나가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주시기를 축원합니다.

---

## Introduction

<sup>i</sup> Dear, John (2007-12-18). *The Questions of Jesus: Challenging Ourselves to Discover Life's Great Answers* (Kindle Locations 114-115). The Doubleday Religious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Location 108.

<sup>2</sup>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3</sup> Matthew 20: 1 – 16, NRSV.

<sup>4</sup> Theology of Discipleship, from *What Every Teacher Needs to Know About Theology*, Discipleship Resources, 2002, pp 35-38.

<sup>5</sup> John 12: 1 - 3, NRSV.

<sup>6</sup> Mark 1: 16-20, NRSV.

<sup>7</sup> Bonhoeffer, Dietrich (2012-08-07). *The Cost of Discipleship* (p. 117). Touchstone. Kindle Edition.

<sup>8</sup> Matthew 16: 24-26, NRSV.

<sup>9</sup> Eric Law refers to this as the Gospel Cycle. A more in depth explanation can be found in his book,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Chalice Press, 1993.

<sup>10</sup> Matthew 19: 16-22, NRSV.

### 1. We Are the Body of Christ

<sup>11</sup> See John 6:35, 8: 12, 9: 5, 10: 9, 10:11, 11:25, 14: 16.

<sup>12</sup> 1 Corinthians 12: 12-14, NRSV.

<sup>13</sup> Ephesians 4: 1-5, NRSV.

<sup>14</sup> Job, Reuben P. (2011-11-01). *Three Simple Questions: Knowing the God of Love, Hope, and Purpose* (Kindle Locations 83). Abingdon Press. Kindle Edition.

<sup>15</sup> Job, Reuben. Kindle Locations 119-120, 130.

<sup>16</sup> John 15: 1-5, NRSV.

<sup>17</sup> John 20: 21-23, NRSV.

<sup>18</sup> Ephesians 2: 19-22, NRSV.

### 2. Spiritual Leaders

<sup>19</sup> LoCurto, Chris & Hogan, C. Question and Answers, November 6, 2012. Dave Ramsey's *EntreLeadership Podcast*.

<sup>20</sup> Barna, George. *The Power of Team Leadership*. Waterbrook Press: Colorado Springs, p. 20.

<sup>21</sup> Romans 12: 3 – 13, NRSV.

<sup>22</sup> Ephesians 4: 11 - 16, NRSV.

<sup>23</sup> Matthew 17: 17-20, NRSV.

<sup>24</sup> Job, Reuben. Loc 261.

<sup>25</sup> Luke 10: 2 - 9, NRSV.

<sup>26</sup>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2, ¶244.3.

<sup>27</sup> BOD 2012, ¶310.1d (1).

### Transformation

<sup>28</sup> 2012 Book of Discipline, ¶121 – excerpts.

<sup>29</sup> John 3: 17, NRSV.

<sup>30</sup> Acts 1: 8-11a, NRSV.

### Reaching Out to a Younger Generation

<sup>31</sup> Kinnamon, David. *The Mosaic Generation: The Mystifying New World of Youth Culture*. Enrichment Journal - Fall 2006: Springfield, Mo.

<sup>32</sup> Kinnamon, *The Mosaic Generation*.

<sup>32</sup> John 10:10, NRSV.

<sup>32</sup> Acts 10: 9-16, NRSV.

---

<sup>33</sup> Acts 10: 22-29, NRSV.

<sup>34</sup> Pew Research Report: *The Millennials: A Portrait of Generation Next*. February 2010.

<sup>35</sup> Philippians 2: 1-3, NRSV.

<sup>36</sup> Pew Research Report.

<sup>37</sup> Kinnamon, *Mosaic Generation*.

<sup>38</sup> Three Simple Questions, Location 459.

<sup>39</sup> Evans, Rachel Held. *Why Millennials are Leaving the Church*. CNN Reports, July 27, 2013.

### **Who is my neighbor**

<sup>41</sup> Luke 10: 25 – 29, NRSV.

<sup>42</sup> 2012 BOD ¶140.

<sup>43</sup> 2012 BOD ¶ 161.

<sup>44</sup> Luke 9: 10-17, NRSV.

<sup>45</sup> 2012 BOD ¶134.

### **Action Plans**

<sup>34</sup> Matthew 7: 7 - 8, NRSV.

<sup>34</sup> Acts 4: 29-31, NRSV.

<sup>34</sup> Revelation 3: 16-17, NRSV.

<sup>34</sup> Luke 4: 16-22, NRSV.

<sup>34</sup> John 11: 15, NRSV.

<sup>34</sup> John 11: 41b - 42, NRSV.

<sup>34</sup> The pyramid is only a summary diagram. You may find the complete strategic plan on the conference web-site: [gnjumc.org](http://gnjumc.org).